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Strategic Insight

FOMC 회의 전후 미국 투자전략

미국 전략 Note

2025. 9. 16

- 미국 FOMC 회의 전 확인해야 하는 10가지 의문점
- 업종 다변화에 대응 필요. 중소형주, 트럼프 정책 수혜주도 주목
- 4개의 투자 아이디어로 대응해야 할 연말

S&P500 지수는 추가 상승 여력 보유 판단: 상단 6,850pt

미국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S&P500 지수의 12MF PER이 22배를 넘어서며 추가 지수 상승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단기 반등이 컸던 만큼 FOMC 회의 전후 일시적 차익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나 S&P500 지수는 추가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예상밴드 상단은 6,850pt다. 2025년 3~4분기 기업 실적 눈높이가 상향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도 추가 EPS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월 말~10월 초에는 3분기 말 리밸런싱, 바이백 블랙아웃 기간 등에 유의해야 하나, 해당 요인들은 구조적인 영향보다는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말부터 중간선거 전 전당대회를 언급하고 있고,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시장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대보다 빠르게 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높고, 친기업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점도 유동성 회복 및 멀티플 확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은 선진국 내 상대적 매력도도 높다고 판단한다. 2024년 말~2025년 초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았던 유럽, 아시아 대표 지수의 반등이 컸고, 미국은 타 국가들 대비로도 대형 기업들의 펀더멘털 개선 폭이 크기 때문이다.

9월 FOMC 회의 전후 미국 투자 전략/아이디어

9월 FOMC 회의~9월 말 일시적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구간에도 방어적인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보다 중장기 성장여력이 높은 업체 중 저평가된 기업들로 대응하는 전략이 전망이다. 대표 방어주인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기업이 개별 이슈(리콜, 비용 부담 확대, 규제 리스크, 경쟁 심화 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선호 업종은 IT, 커뮤니케이션, 차선호 업종은 산업재, 유틸리티 업체로 유지한다. 관세/경기 불확실성 장기화에도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적이었고, 실적 개선 여력이 높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구체화 시에도 수혜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2025년 연말에는 1) 업종 다변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2)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9월 FOMC 회의 이후 연준의 정책 부담이 완화되는 경우 3) 트럼프 행정부 정책 수혜주도 점검해야 한다. 대표 투자 아이디어는 크게 네 개를 제시한다. 1) 국채금리 하락 수혜 업체, 2) 정부/기업 지출 증가 수혜 기업, 3) 중간선거 정책 구체화 수혜 업체, 4) AI/로봇 관련 기업 등〈표 4〉이다.

최보원
bochoi@koreainvestment.com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확산되는 10가지 의문점

9월 FOMC 회의를 앞두고 S&P500 지수의 12MF PER이 22배를 넘어서며 미국 주요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FOMC 회의 전 확인해야 하는 10가지 의문점과 대응 전략에 대해 점검한다.

<표 1> 미국 증시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 전략

리스크 요인	영향/시사점 및 대응 전략
1)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펀더멘털 훼손이 우려보다 제한적 -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가능성도 높게 평가 - 아직 수출, 수입 업체들이 관세 흡수하며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 제한적 - 물가 상승 부담에도 관세 정책이 향후 10 년간 미국 재정적자를 4 조달러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2) 고용 약화 및 소비 둔화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 고용 약화되는 점 부담이나,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올해 4 분기~내년 1 분기 내수 부양 위한 정책도 구체화 예상 - 소비 둔화 부담 지속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연말 소비시즌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강해질 것 - 대표 소비재/유통 업체는 미국 전체 소비 동향 뿐만 아니라 개별 이슈들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점 감안 필요 - 가성비 높은 제품 및 온라인 결제 관련 기업들은 우려보다 실적 양호
3) FOMC 회의 이후 차익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	- 일시적 유동성 위축 및 리밸런싱 수요 확대는 예상 - 다만 점도표, SEP 이 기대치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 영향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 - 관세 영향 경계 강조하겠으나, 점도표 상 기준금리 인하 방향성 이어지는 경우 점진적 국채금리 하락에 대응하는 전략 필요 - 기준금리 인하 속도 둔화 경계 확산 시에도 파월의장 임기 만료 앞두고 재차 기대감 확대되는 국면 대응 필요
4) 관세, 경기 둔화 등에 따른 하반기 기업 실적 약화 가능성	- 2 분기, 연간 실적 눈높이가 평년 대비로도 크게 상향 - 일부 영향은 반영되겠으나, 2026 년 실적 개선 기대감 여전 - 정부 지출 증가 및 국채금리 하락 수혜 업체 실적 개선 여력 보유 - 트럼프 행정부의 친기업 정책 지속 - AI/로봇 등 성장 산업 대표 기업의 외형 성장 기대감 여전 - 2018 년, 2020 년 등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 2 기에는 대형 기업들이 공급망 전환에 빠르게 대응 - 관세 부담으로 주가 부진하나, 공급망 재편 빠르게 진행된 기업들은 오히려 가이던스/컨센서스 상향 중
5) 바이백 블랙아웃 기간	- 일시적으로 유동성은 위축될 수 있으나 영향 제한적 예상
6) 9 월 선물/옵션 만기일 (네 마녀의 날)	- 단기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이나 구조적 영향은 제한적 예상
7) 9 월 말/3 분기 말 리밸런싱	- 미국 비중 크게 줄이기보다 업종 로테이션, 기업 편출/편입으로 대응 예상
8) 대법원 관세/이민 정책 관련 판결	- 불확실성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 유의 필요 - 다만 9 명의 대법관 중 6 명이 보수성향 - IEEPA 를 기반으로 한 관세에만 영향 미칠 것(차등 상호관세 등). 품목별 관세 부과 여부는 모니터링 필요 - 패스트 트랙 통한 판결 진행 시에도 적어도 연말까지는 결과 경계 높아지는 점은 부담
9)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 S&P500 지수의 12MF PER 이 22.2 배까지 높아지며 밸류에이션 부담은 확대 - 다만 여전히 2024 년 상단 보다는 낮은 수준 - 2024 년 말~2025 년 초와 달리 유럽, 아시아 등 미국 이외 국가들의 반등 컸고, 미국은 상대적으로도 대형 기업들의 펀더멘털 개선 컸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상대적 매력도 여전히 높다고 판단 - 미국은 멀티플 확장 동력도 보유. 친기업 정책 및 내수 부양 정책 구체화 예상되고, 감세 계획 공개 - IT/커뮤니케이션 등 대형 성장기업 비중이 IT 버블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대비 높아졌고,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하 예상
10) 3 분기 어닝 시즌 부진 가능성	- S&P500 기업의 3 분기 매출, EPS 는 전년동기대비 5.6%, 8.5% 증가할 전망. 7 월 초의 3.7%, 8.0% 대비 상향조정 - 4 분기 매출, EPS 는 전년동기대비 5.9%, 7.6% 증가할 전망. 2026 년 1 분기에는 6.5%, 12.2% 증가 예상 - 2 분기와 같이 79%의 기업이 예상보다 양호한 매출, 80%가 기대치 상회 EPS 발표하는 수준은 아니겠으나, 현재 예상수준의 실적 개선 시에도 S&P500 지수는 추가 상승 가능 예상 - 과거 8 개 분기 평균 수준의 기업만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상밴드 상단은 더 높아질 수 있을 전망

자료: 한국투자증권

주요 의문점 대응 전략& S&P500 지수의 추가 상승 여력

주요 리스크 요인 및 대응 전략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이다. 미국 연준은 9월 FOMC 회의를 통해서도 관세 영향에 대한 경계를 이어가겠으나,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계획을 지속할 경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연말에도 물가 상승 영향은 반영되겠으나, 연준 인사들이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아직 수출/수입 업체들이 관세를 흡수하며 소비자 가격으로의 전가가 더디다.

반면 미국 의회예산국(CBO) 차원에서도 관세 수입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일부 상쇄하는 영향도 연말에는 고려해야 한다. 즉 관세 정책은 연말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하는 요인이기는 하나, 우려보다는 대형 기업들의 펀더멘털 훼손이 제한적이며, 부정적인 영향만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고용 약화 및 소비 둔화에 따른 경제 성장률 둔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 성장률 둔화는 미국 대형 기업들의 펀더멘털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다만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존 대비로도 빠른 시기부터 내수 부양 정책이 구체화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당대회를 기대보다 빠르게 준비할 계획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 침체보다는 둔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국채금리 하락 수혜 업체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수혜 업체에 대한 관심도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일시적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도 구조적 흐름에 대응 필요

9월 FOMC 회의 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일시적 차익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은 부담이다. 3분기 말, 10월 초 고용 지표 발표, 10월 초~중순 어닝 시즌 진입을 앞두고 리밸런싱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일시적 유동성 위축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선물/옵션 만기일과 바이백 블랙아웃 기간 등도 일시적으로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해당 요인들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구조적으로는 연준 정책, 기업 실적,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일시적 유동성 위축 국면에서도 방어적인 기업들로 대응하기 보다 중장기 성장 여력이 높은 업체들과 저평가된 업체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이 유효할 전망이다. 방어적인 기업들의 경우 경기 둔화 및 소비 약화 부담이 상대적으로도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내수 소비재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개별 이슈들(리콜, 비용 부담 확대, 경쟁 심화, 규제 리스크 등)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구조적 상승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의 관세/이민 관련 정책들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적어도 연말까지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성향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종 판결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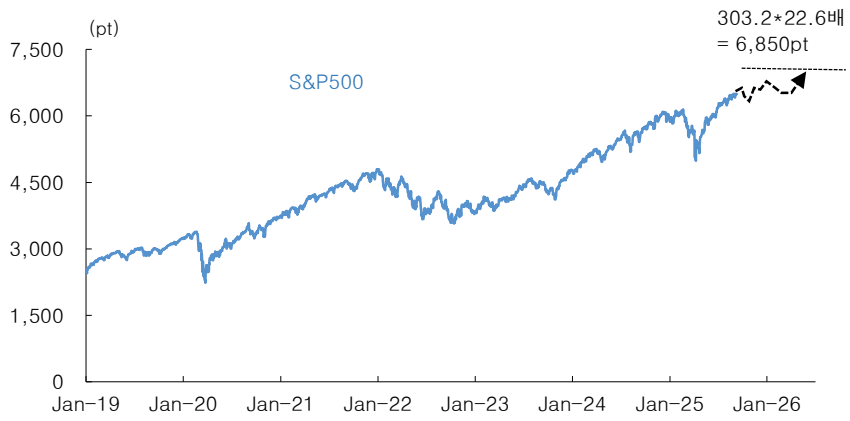
2025년 S&P500 지수 예상밴드 상단: 6,850pt

S&P500 지수의 예상밴드 상단은 6,850pt로 제시한다. 하반기 실적 미국 주요 지수가 위의 리스크 요인에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3~4분기 대표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 이후 하향 조정되던 2025년 연간 EPS 전망치가 7-8월 어닝 시즌 이후 상향됐다. 2026년 1분기 S&P500 기업의 EPS는 전년동기대비 1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2MF EPS가 개선되고 있는 점도 지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형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정책(감세, 유럽 규제 완화 등)이 제시되고 있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수 부양 정책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멀티플 확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선진국 내 최선호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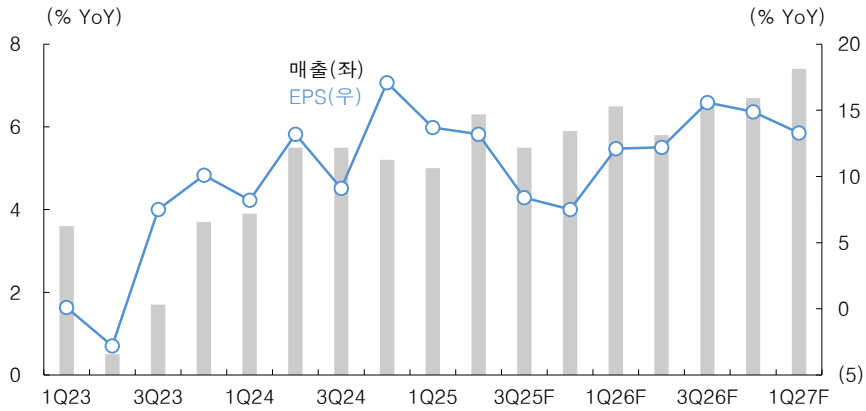
미국은 선진국 내에서도 투자 매력이 높다고 판단한다. 2024년 말~2025년 초와 달리 유럽, 아시아 대표 지수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요 선진국 중 대형 기업들의 실적 개선 폭도 크다. 미국은 유럽, 일본 등 대표 선진국 대비 재정 부담이 제한적이며, 정책 수혜 업체의 반등이 아직 크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그림 1] S&P500 지수 예상 밴드 상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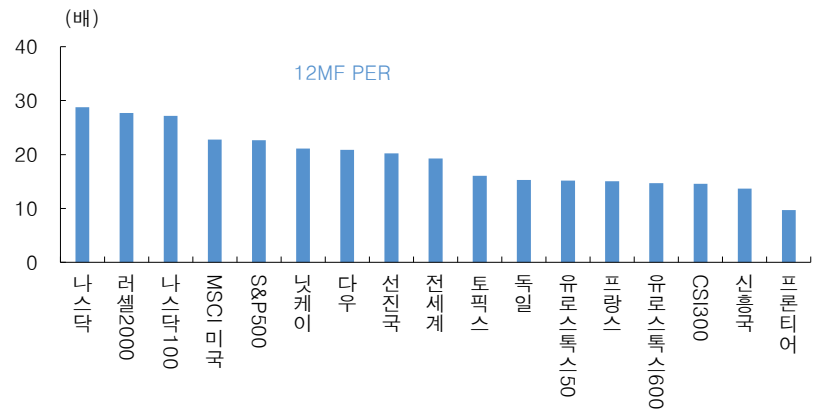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S&P500 기업 분기 매출, EPS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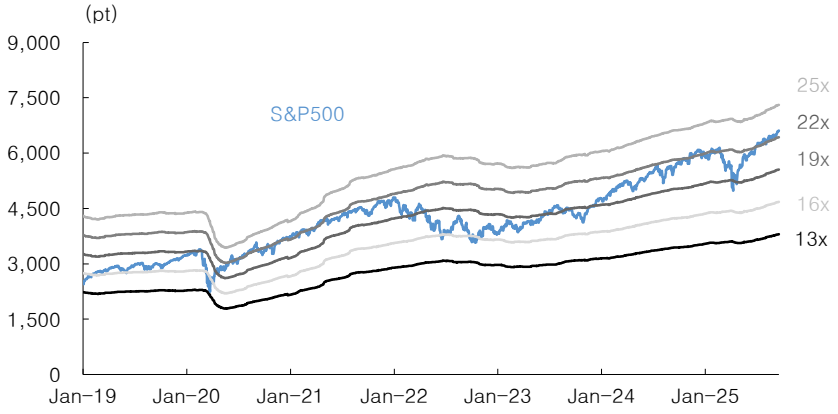
자료: LSE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주요국 대표 지수 12MF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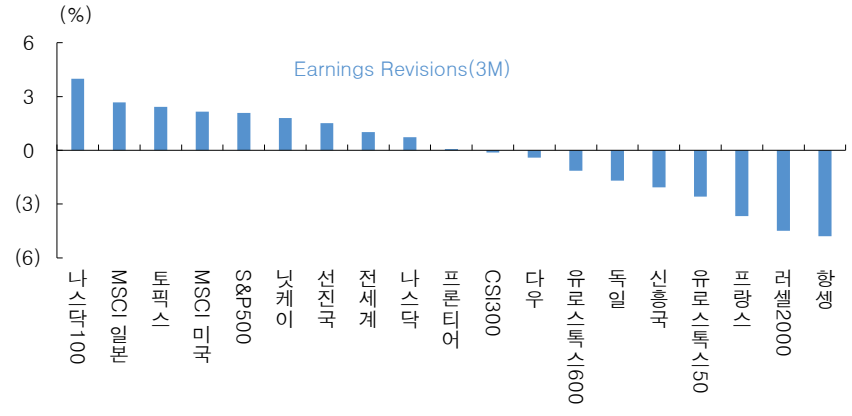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4] S&P500 지수 PER 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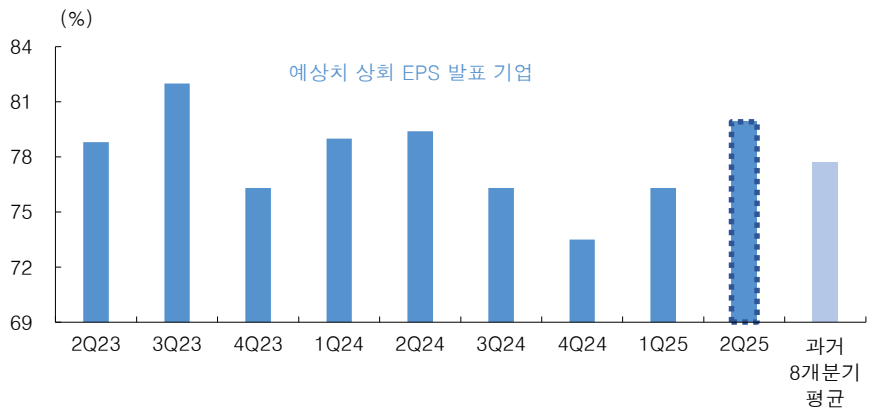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주요국 대표 기업 이익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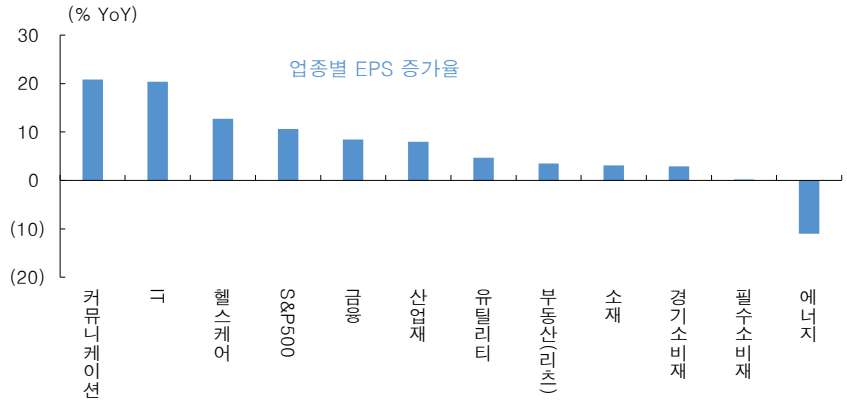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S&P500 기업의 분기별 예상치 상회 EPS 발표 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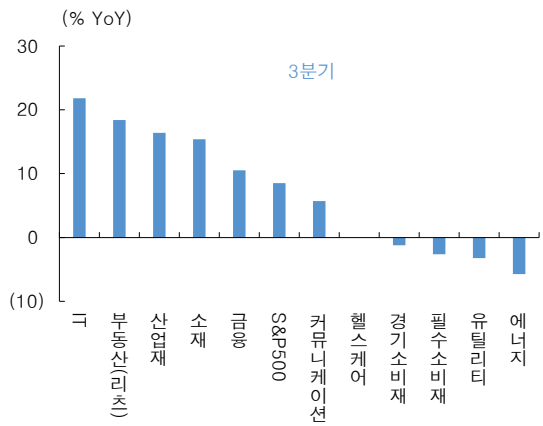
자료: LSEG, 한국투자증권

[그림 7] S&P500 2025년 연간 EPS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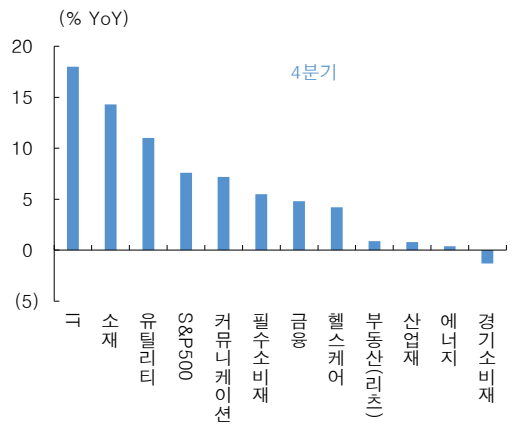
자료: LSEG, 한국투자증권

[그림 8] S&P500 업종별 3분기 EPS 증가율



자료: LSEG, 한국투자증권

[그림 9] S&P500 업종별 4분기 EPS 증가율



자료: LSEG, 한국투자증권

과거와는 달라져야 할 2025년 연말~2026년 연초 투자 전략

키워드는 다각화, 중소형주, 정책 수혜주

2025년 연말에는 상반기 대비로도 1) 업종 다변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2)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3-4분기는 IT, 커뮤니케이션 이외 업체들의 실적 회복 속도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침체가 아닌 둔화에 그칠 가능성이 부각될 경우 중소형주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발표된 중소형주 관련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고, 국채금리 하락 및 대출 규제 완화 수혜가 예상되는 업체라는 점에서도 연말~연초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8월 말부터도 전당대회를 언급하고 있는 만큼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대보다 정책이 빠르게 구체화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대표적인 3)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수혜 업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을 주목해야 하며 대표적으로는 산업재/인프라, AI/로봇, 공급망 재편 관련주가 해당한다.

<표 2> 2025년 연말 ~2026년 상반기 투자 전략

투자 전략	선정 이유/세부 전략
1) 다각화	- 일부 대형 성장주 이외의 업종 2~10 위 기업 및 중소형주로의 관심 확대 필요 - IT/커뮤니케이션 이외 업체들의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 만큼 수익률 분산에 대응 필요 - 2024 년 및 2025 년 상반기와 달리 스타일별 대응 보다 업종별 차별화 심화 예상 - 3, 4 분기에는 IT, 커뮤니케이션 업종 이외에도 실적 개선 기대되기 때문 - 업종별 로테이션이 과거 대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국면 - 매크로 지표,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발표, 연준 발언 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및 반발 매수세 유입 반복적으로 나타날 전망 - 다만 중장기 실적 개선 여력 높고, 정부 지출 증대 수혜 업체 관심은 지속 예상
2) 중소형주	- 중간선거 앞두고 내수 부양 정책 구체화 수혜 기대 - 점진적 국채금리 하락 + 경기 침체보다 둔화에 그칠 가능성 부각 시 유동성 유입 예상 - 2022~2024 년과 달리 2025 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 실적 계산 기대 - 중소기업 관련 지표들도 개선
3) 트럼프 행정부 정책 수혜주	- 2022~2024 년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 직전의 반기를 제외하곤 연준 정책에 민감도 높은 국면 나타난 바 있음 - 다만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 및 파월 의장 임기 만료 앞두고 점진적으로 연준 정책 민감도는 약화 예상 - 트럼프 행정부 규제 리스크 제한적이고, 규제 완화 기대감 높은 업체 선별 필요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3> 2025년 연말 ~2026년 상반기 투자 아이디어

투자 전략	주목 기업/투자 아이디어
1) 다각화	- IT/커뮤니케이션 업체 중에서도 반도체/시가총액 1 위 기업 이외로도 관심 확산 필요 - 성장주 이외에 저평가된 산업재/인프라 업체
2) 중소형주	- 중소형 기업 중에서도 외형 성장 지속 기업 - IWM, IJR 등의 유동성 유입 기대되는 중소형 관련 ETF 로도 대응 가능
3) 트럼프 행정부 정책 수혜주	- 산업재/인프라, 장비주 등 공급망 재편 수혜 업체 - AI/로봇/자동화 관련주 등 중장기 성장 여력 높은 기업 - 방산/우주항공 등 국방 강화 수혜 업체 - 참고) 헬스케어 업체는 대표적으로 정책 불확실성 큰 업체 밸류에이션, 내수 비중 보다 불확실성이 주가 등락 요인될 것

자료: 한국투자증권

미국 대표 투자 아이디어 네 가지

트럼프 행정부/연준 정책 기반의 투자 아이디어 구축 필요

2025년 연말에도 리스크 요인들은 남아있으나, 기회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불확실성 요인들이 다양한 만큼 숫자로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실적 모멘텀에 더해 정책 모멘텀이 반영될 업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2025년 연말 주목해야 하는 투자 아이디어로는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한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준의 정책 방향성에 대응하기 위한 1) 국채금리 하락 수혜 업체와, 2) 정부/기업 지출 증가 수혜 업체다. 대표적으로는 홈빌더, 주택개량 업체, 성장주, 중소형주, 산업재/인프라 관련주가 해당한다. 기대보다 빠른 내수부양 정책 구체화 및 친기업 정책 구체화 시에는 3) 소비재/유통, 4) AI/로봇 관련주의 관심도 높여야 한다.

<표 4> 미국 대표 투자 아이디어

주목 기업/아이디어	선정 이유	대표 산업/기업
1) 국채금리 하락 수혜 업체	- 트럼프 행정부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 가속화 필요성 강조 - 국채금리 하락 수혜 예상되는 대표적인 업종인 주택 시장 활력 회복 필요성도 강조 (주택 거래량 증가 및 활력 회복 등) -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경기 침체보다는 둔화에 그칠 가능성 높아질 경우 주목할 수 있는 업종 부각 예상	- 홈빌더, 주택개량 - 성장주 - 중소형주
2) 정부/기업 지출 증가 수혜 기업	- 자체 공급망 강화 위한 기업 투자는 진행 - 인건비/물류비 개선 위한 비용 효율화 진행중이나, 자동화/판매채널 다각화 위한 투자는 진행 - 정부 차원에서도 디지털화/자동화 위한 투자는 진행중 - 점진적 국채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 증가 기대 -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국가 차원에서도 국방비(무기, 인프라 등) 지출 증가 필요성 강조	- 산업재/인프라 관련주
3) 중간선거 관련 정책 구체화 기업	-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 소비 개선 위한 정책 구체화 예상 - 대표 경기소비재/유통 기업들이 대표적 - 경기 침체 부담 완화에 따른 경기 민감주도 부각 예상	- 대표 소비재, 유통
4) AI/로봇 등 대표 성장주	- AI/로봇/자동화 관련 기업들에 우호적인 정책 구체화 - 대형 기업들과 AI 관련 업체들의 계약 체결 가속화 - 대형 클라우드/데이터센터/디지털화/산업 자동화 관련 기업들의 외형 성장 지속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 대상으로 디지털세 부과 등을 경계하는 발언 강조 - 미국 대표 성장 기업들의 미국, 해외 매출 증대 가능성 부각 예상	- AI/로봇 관련주 - 대표 IT, 커뮤니케이션 기업 등

자료: 한국투자증권

Appendix #1. 트럼프 행정부 수혜/피해 업종

<표 5> 트럼프 행정부 정책 수혜/피해 업종

구분	업종	영향
긍정적	산업재/인프라	이민자 지원 정책 축소에 따른 생산인구 축소 부담 확대 예상 반면 세금 혜택 및 지원 확보 위한 일부 근로 활동 증가는 기대 인력 및 공급망 부담 제한적인 환경 위한 산업 자동화 시설 구축 필요
	방산/우주항공	국방비 증가, 무인 항공 산업 강화 등에 따른 산업 성장 기대 미국 자국 기술/장비 활용 필요성 높아지고 있는 점도 관련 기업 주목 이유
	보안	정부 지출 증가 및 기술 강화 필요성 부각 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기업 실적 개선 예상
혼재	금융	세금 부담 완화에 따른 기업/개인 대출 증가 기대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 부담 확대 가능성도 부각
	소비재	감세 법안 지속 및 일부 소득세 부담 완화에 따른 소비 개선 기대 일부는 부채 한도 증액 조치도 공개. 이자율 상승에 따른 대출 부담도 가중 예상
	에너지	친환경 지원 축소에 따른 전통 에너지 기업 부각 반면 경기 불확실성 확대, 공급 확대에 따른 원유 가격 구조적 상승은 제한적
부정적	헬스케어	의료 보험자수 축소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자 수 감소 영향 반영 예상 의료 산업 내 구조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심화 제약 산업 내 관세 불확실성, 규제 강화, 경쟁 지속되는 점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진입 부담 낮은 만큼 기술적 반등은 예상되나, 구조적 회복까지는 시간 걸릴 전망
	청정 에너지	태양광, 풍력 발전 투자 세액공제 축소 중국과 연계된 재생 에너지 사업에는 추가 과세 방안도 강조

자료: 한국투자증권

Appendix #2. 중장기 미국 투자 아이디어

[그림 10] 투자 아이디어(중장기 성장 여력+규제 완화 기대감+대표 기업 실적)

구분		관련주/ETF
M	Manufacturing, 제조업체	캐터필라(CAT), 파커-하니핀(PH), 패스널(FAST), 로크웰 오토메이션(ROK) 등
A	AI 관련 산업 및 전력인프라	알파벳(GOOGL), 브로드컴(AVGO), 서비스나우(NOW), 팔란티어(PLTR), 트레인테크놀로지스(TT) 등
R	Robot, 로봇/자동화	인튜이티브 서지컬(ISRG), 보스턴 사이언티픽(BSX), 테라다인(TER), 지브라(ZBRA) 등
S	Small Cap, 스몰캡	IWM, IJR, VBK 등
S	SMR, 소형모듈원전	GE 베르노바(GEV), 컨스텔레이션에너지(CEG), AEP(AEP), 카메코(CCJ), 뉴스케일파워(SMR) 등
S	Security, 보안	팔로알토 네트웍스(PANW), 포티넷(FTNT), 인포시스(INFY), Zscaler(ZS) 등
S	Space/Defense, 우주항공	RTX(RTX), 제너럴 다이내믹스(GD), L3해리스(LHX), 크라토스 디펜스&시큐리티(KTOS) 등

주: 하반기 전망(25/5/29, 각양각색, 화성(MARS)과 위성(SSS) 자료 참고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6> 2025년 하반기에 최소한 주목해야 하는 5개 기업

티커	기업명	업종	투자포인트
GOOGL	알파벳	커뮤니케이션	• 중장기 AI 수혜 기대. 하반기 AI 관련 규제 완화 시에도 주목 가능 • 관세 부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대표 기업 •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밸류에이션 부담
ROK	로크웰 오토메이션	산업재	• 산업 자동화 수혜 기대되는 사업 부문 보유 • 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한 시설 구축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 • ARR 성장세 지속. 동일 업종 내에서도 높은 주주환원 매력 보유
BSX	보스턴 사이언티픽	헬스케어	• 내시경, 비뇨기과, 신경조절 사업부 기반의 중장기 매출 증가 기대 • 비침습 기술 기반의 위장관 질환 진단, 치료 장비 수요 확대 예상 •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해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가능
KTOS	크라토스 디펜스 & 시큐리티	산업재	• 드론, 우주/위성 시스템, 미사일, 레이더 등의 제품 판매 증가 예상 • 방산 제품/소프트웨어 기업들로 상대적으로 안정적 공급망 구축 • 미국 해군, 공군, 육군 및 해외 고객 대상 수요 확대 수혜 기대
AEP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	유틸리티	• 미국의 안정적 전력 공급망 구축, 유통, 저장 수요 확대 수혜 예상 • 에너지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기대감 부각 시에도 주목 가능 • 안정적인 주주환원 정책 지속 업체

주: 하반기 전망(25/5/29, 각양각색, 화성(MARS)과 위성(SSS) 자료 참고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주목 테마 및 투자 아이디어(ETF)

구분		관련 ETF
M	Manufacturing, 제조업체	XLI, RSHO
A	AI 관련 산업 및 전력인프라	XLK, XLC, IGF, XLU
R	Robot, 로봇/자동화	ROBO, BOTZ
S	Small Cap, 스몰캡	IWM, IJR, VBK
S	SMR, 소형모듈원전	NLR, URA
S	Security, 보안	CIBR, HACK
S	Space/Defense, 우주항공	SHLD, ITA, PPA, ARKX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7> 2025년 하반기에 최소한 주목해야 하는 5개 ETF

티커	ETF 명	주요 테마/키워드	선정 이유
ARKX	ARK Space Exploration & Innovation ETF	우주항공, 보안, 제조, 무인항공기/드론	- 미국이 중국 등 기타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 높이고자 하는 산업 -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도 규제 강화 및 지원 필요성 강조 - 대표 기업들은 정부/기업과 계약 체결을 통해 실적 개선 기대
RSHO	Tema American Reshoring ETF	제조, 장비, 리쇼어링, 자동화	- 미국 관세 발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 관련주들이 포함 - 미국의 제조시설 구축, 해외 기업의 미국 제조시설 강화 수혜 기대 - 점진적 국채금리 하락 시에도 대응 가능. 자동화 관련 투자/정부 지출 증대 시에도 주목 가능
IHI	아이셰어즈 U.S. 메디컬 디바이시스 ETF	로봇, 자동화, AI, 장비	- 미국 인구구조 변화, AI 산업 활성화, 디지털화에 대응 가능한 기업들로 구성 - 로봇/자동화 수요 확대 시 주목 예상. 베이비부머 세대 소비 변화에도 대응 가능 - 대표 기업은 밸류에이션 부담 낮은 헬스케어 업체 중에서도 중장기 실적 개선 여력 높음
IGV	아이셰어즈 익스팬디드 테크-소프트웨어 섹터 ETF	AI, IT, 소프트웨어	- 미국 AI 산업 활성화 수혜 기대 업체 비중 높음. 산업 내 경쟁력/점유율 높은 업체들로 구성 - IT 기업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부담 제한적인 업체들이 상위에 위치 - 중장기 수요 높아질 제품/서비스 보유 업체 포함. 중장기 규제 완화 기대감도 반영 예상
IWM	아이셰어즈 러셀 2000ETF	중소형주, 경기침체 부담 완화	- 실적 회복 속도 더딘 점 부각되며 반등 제한적이었으나, 2025~2026 년 실적 개선 기대 - 대형주 대비 단기 등락은 클 것으로 예상되나, 밸류에이션 부담 제한적인 만큼 상승 여력 보유 - 점진적 국채금리 하락, 경기침체 완화시키는 지표 공개 시에도 대응 가능

자료: 한국투자증권

Appendix #3. 미국 주요 지수 및 업종 수익률

<표 8> 미국 주요 지수 수익률

(단위: pt, %, 배)

구분	종가	수익률				EPS 변화		12MF	PER 변화	
		1W	1M	3M	YTD	1M	3M	PER	1M	3M
미국 주요 지수										
다우	45,883.5	0.8	2.1	8.7	7.8	1.0	2.7	20.9	0.2	1.2
S&P500	6,615.3	1.8	2.6	10.7	12.5	1.6	5.2	22.6	0.2	1.1
나스닥	22,348.8	2.5	3.4	15.2	15.7	0.3	6.2	28.8	0.9	2.2
나스닥100	24,293.8	2.2	2.5	12.3	15.6	2.4	7.7	27.2	0.0	1.1
러셀2000	2,405.1	0.4	5.2	14.5	7.8	(5.7)	3.3	27.7	2.9	2.7
러셀3000	3,766.5	1.6	2.8	10.9	12.2	1.3	5.2	22.7	0.3	1.2
필라델피아	6,059.8	4.3	5.3	18.5	21.7	4.1	10.3	25.0	0.3	1.7
스타일										
성장주	4,840.8	3.0	4.0	14.3	18.2	2.4	7.6	27.6	0.2	1.4
가치주	2,004.0	0.5	0.9	6.6	6.2	0.9	3.4	18.5	0.0	0.6
중소형성장	1,603.2	0.7	4.9	14.3	9.1	(21.6)	(1.0)	42.3	10.7	5.7
중소형가치	2,628.7	0.1	5.5	14.7	6.6	5.4	4.4	20.2	0.0	1.8

주: 9/15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9> 미국 S&P500 및 러셀2000 업종별 수익률

(단위: pt, %, 배)

구분	종가	비중	수익률				12MF
			1W	1M	3M	YTD	PER
S&P500							
IT	5,451.2	31.1	3.2	2.4	17.1	18.3	29.7
커뮤니케이션	434.1	15.4	3.5	8.2	20.3	27.1	20.7
금융	890.8	13.4	1.1	2.2	7.4	10.7	16.9
경기소비재	1,935.0	10.5	1.9	4.8	13.3	5.7	27.1
헬스케어	1,589.8	8.3	(0.7)	0.3	0.5	(0.9)	16.7
산업재	1,283.9	7.6	0.7	1.0	6.6	15.1	24.1
필수소비재	878.7	5.4	(1.1)	(2.3)	(1.6)	2.9	21.5
에너지	670.4	2.7	1.4	2.9	0.2	2.4	15.3
유틸리티	432.4	2.1	3.6	(0.2)	5.2	12.3	18.1
부동산	264.3	1.8	0.7	2.0	1.0	3.3	36.2
소재	577.4	1.7	(1.0)	0.9	5.0	9.0	20.3
러셀 2000							
IT	7,875.2	14.7	5.2	10.8	21.7	8.7	33.4
커뮤니케이션	2,261.9	3.7	1.7	24.1	53.6	47.0	-
금융	2,495.9	18.4	(1.3)	3.9	11.7	6.2	11.6
경기소비재	4,255.8	10.5	(1.1)	3.2	15.1	2.4	16.0
헬스케어	4,180.9	15.9	(2.5)	2.0	7.7	1.9	-
산업재	4,208.8	16.8	1.5	3.9	18.4	15.3	21.9
필수소비재	4,126.6	2.5	(1.8)	(0.0)	7.6	3.0	15.0
에너지	278.1	5.0	1.6	7.0	5.5	(5.1)	20.3
유틸리티	2,246.5	2.8	3.8	3.4	6.4	11.7	21.2
부동산	1,071.1	5.6	(0.3)	5.6	9.1	0.8	46.1
소재	4,711.5	4.1	2.9	11.3	32.6	36.6	17.8

주: 9/15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ppendix #4. 미국 업종별 대표 기업

<표 10> S&P500 업종별 대표 기업 수익률 및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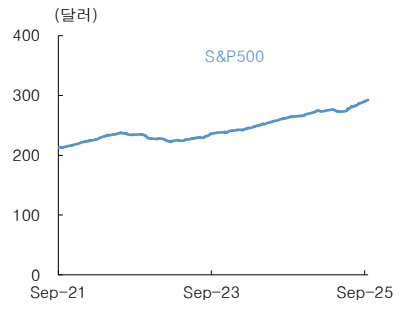
(단위: 십억달러, 달러, %, 배)

업종	종목명	시가총액	종가	수익률				12MF
				1W	1M	3M	YTD	PER
IT								
1	엔비디아	4,321.0	177.8	5.6	(1.5)	25.2	32.4	31.6
2	마이크로소프트	3,790.2	515.4	3.4	(0.9)	8.5	22.3	32.0
3	애플	3,473.7	236.7	(0.5)	2.2	20.5	(5.5)	30.0
4	브로드컴	1,699.4	364.1	5.3	18.9	46.4	57.0	41.0
5	오라클	830.3	302.1	26.7	21.7	40.4	81.3	42.0
커뮤니케이션								
1	알파벳	2,915.6	251.6	7.5	23.4	44.0	32.9	22.8
2	메타 플랫폼스	1,898.1	764.7	1.6	(2.6)	12.0	30.6	22.1
3	넷플릭스	505.0	1,202.3	(3.4)	(3.0)	(0.8)	34.9	39.1
4	T-모바일 US	272.0	239.7	(1.3)	(5.8)	5.1	8.6	19.4
5	AT&T	211.4	29.6	2.5	2.6	5.1	30.1	13.5
금융								
1	버크셔 해서웨이	1,065.0	491.5	(0.5)	3.0	0.8	8.4	23.0
2	제이피모간체이스	843.9	308.9	5.5	6.3	16.6	28.9	15.3
3	비자	668.5	339.1	(0.9)	(1.6)	(3.9)	7.3	26.5
4	마스터카드	524.7	583.0	(0.6)	0.2	3.7	10.7	32.0
5	뱅크오브아메리카	374.6	50.6	2.3	7.8	14.7	15.1	12.4
경기소비재								
1	아마존 닷컴	2,433.2	231.4	(1.9)	0.2	9.1	5.5	26.1
2	테슬라	1,315.8	410.0	18.4	24.0	26.0	1.5	180.8
3	홈디포	420.7	422.7	0.7	5.8	19.2	8.7	26.7
4	맥도날드	217.9	302.1	(3.4)	(2.2)	0.1	4.2	23.1
5	부킹 홀딩스	176.9	5,559.8	(0.2)	1.9	4.9	11.9	22.5
헬스케어								
1	일라이 릴리	714.9	748.2	1.3	6.7	(8.7)	(3.1)	27.0
2	존슨앤드존슨	428.8	177.4	(0.4)	0.4	12.9	22.7	15.8
3	애브비	385.7	217.6	3.7	5.3	13.9	22.5	16.0
4	유나이티드헬스 그룹	319.3	347.9	8.6	14.4	11.0	(31.2)	20.1
5	애보트 래버러토리	232.8	131.3	(0.7)	(0.3)	(3.2)	16.1	23.8
산업재								
1	제너럴 일렉트릭	298.7	286.8	3.9	7.1	21.2	71.9	43.4
2	RTX	208.6	158.4	2.7	2.8	8.7	36.9	24.6
3	캐터필러	202.2	435.9	3.1	6.9	22.1	20.2	21.5
4	우버 테크놀로지스	200.0	98.9	4.8	6.7	17.8	63.9	24.9
5	GE 버노바	170.3	628.7	4.7	1.1	31.4	91.1	56.2
필수소비재								
1	월마트	825.1	103.7	1.4	3.7	9.8	14.8	36.8
2	코스트코 홀세일	429.2	960.1	(1.2)	(1.2)	(3.0)	4.8	47.8
3	프록터 앤 갬블	369.6	156.8	(1.4)	1.6	(2.2)	(6.5)	22.2
4	코카콜라	288.4	66.2	(1.8)	(5.3)	(6.8)	6.3	21.1
5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	258.6	161.6	(0.7)	(2.7)	(12.3)	34.3	19.9
에너지								
1	엑손 모빌	478.2	112.4	2.3	5.5	0.2	4.4	15.5
2	쉐브론	321.7	157.3	2.1	0.5	7.8	8.6	17.7
3	코노코필립스	115.4	92.3	1.0	(3.1)	(4.8)	(6.9)	13.9
4	윌리엄스 컴퍼니스	71.8	58.4	2.7	1.6	(2.3)	7.9	25.3
5	EOG 리소시스	64.5	117.5	(0.1)	(1.2)	(6.2)	(4.1)	10.9
유틸리티								
1	넥스트에라 에너지	147.5	71.5	2.5	(5.2)	(4.4)	(0.3)	18.6
2	서던 컴퍼니	101.5	92.3	1.6	(1.9)	2.1	12.1	20.5
3	Constellation Energy Corp	101.1	330.4	10.6	2.5	11.3	47.7	30.4
4	듀크 에너지	94.8	122.4	1.8	(0.1)	4.7	13.6	18.5
5	비스트라	71.1	213.5	13.6	8.2	22.9	54.9	27.7
부동산								
1	웰타워	113.1	168.9	(0.3)	3.7	10.8	34.0	66.3
2	프로로지스	109.5	114.3	0.6	7.2	6.5	8.1	29.2
3	아메리칸 타워	91.3	192.5	(0.6)	(6.6)	(10.4)	5.0	28.3
4	이퀴닉스	77.2	791.7	3.4	1.3	(11.3)	(16.0)	53.3
5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60.3	175.0	8.6	4.9	0.3	(1.3)	72.2
소재								
1	린데	226.0	476.7	0.4	(0.7)	2.3	13.9	27.2
2	셔윈-윌리엄즈	89.8	357.1	(4.8)	(2.0)	6.3	5.0	29.0
3	뉴몬트	87.1	79.4	4.8	14.5	37.1	113.2	14.2
4	에코랩	77.3	270.6	(1.7)	(3.6)	2.4	15.5	32.9
5	에어 프로덕츠 앤드 케미컬스	65.2	289.5	0.2	(0.3)	3.3	(0.2)	22.4

주: 9/15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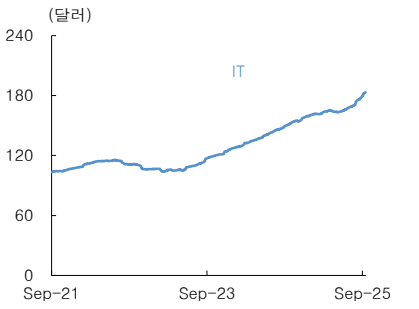
Appendix #5. 지수 업종별 12MF EPS 변화

[그림 12] S&P500 EPS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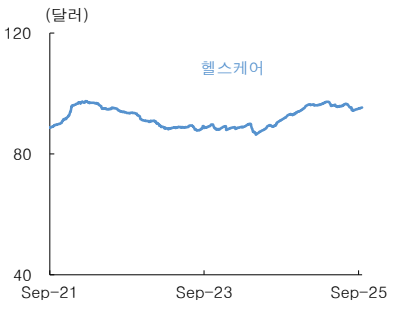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IT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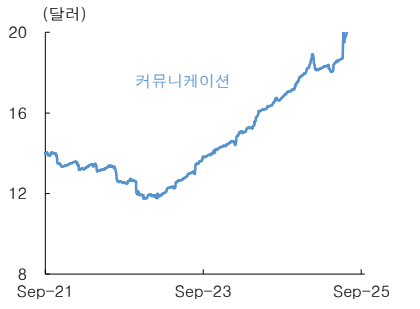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헬스케어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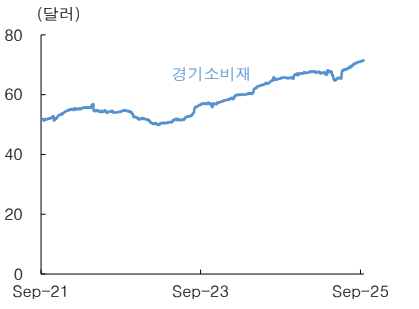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5] 커뮤니케이션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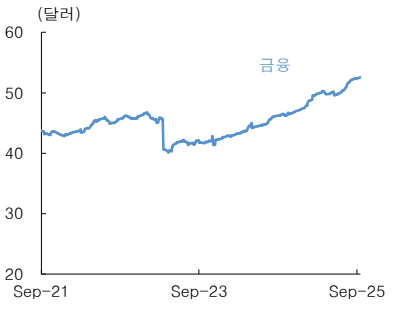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경기소비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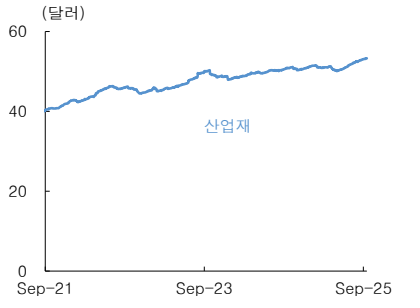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7] 금융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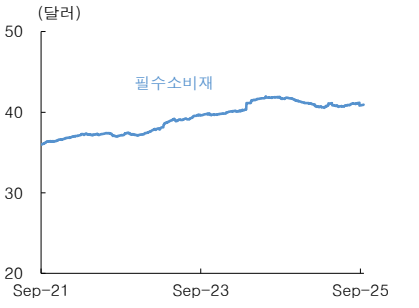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산업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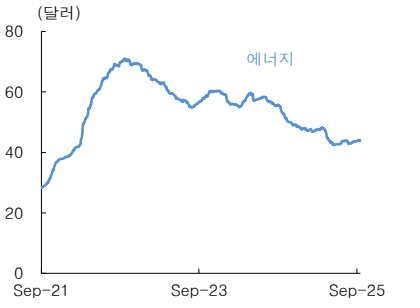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19] 필수소비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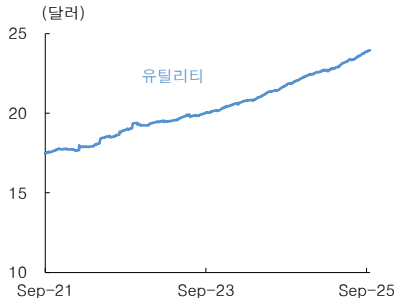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0] 에너지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1] 유틸리티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2] 부동산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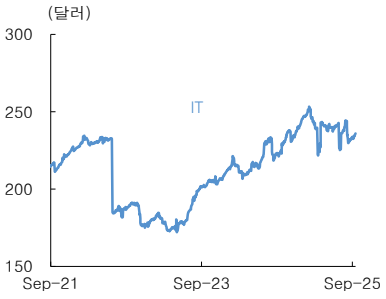
[그림 23] 소재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4] 러셀2000 EPS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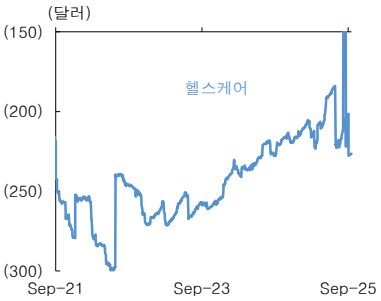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5] IT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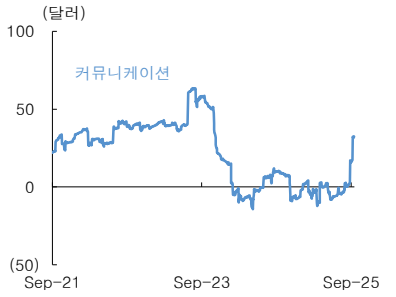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6] 헬스케어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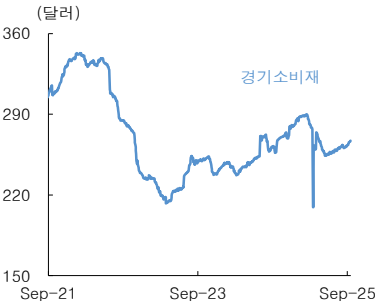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7] 커뮤니케이션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8] 경기소비재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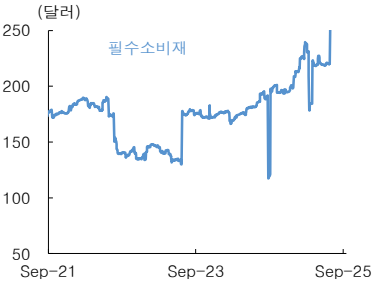
[그림 29] 금융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0] 산업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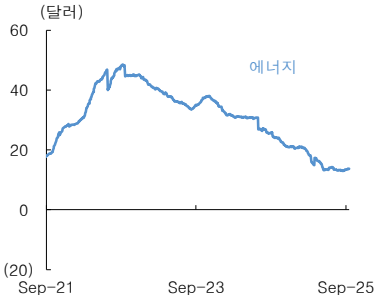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1] 필수소비재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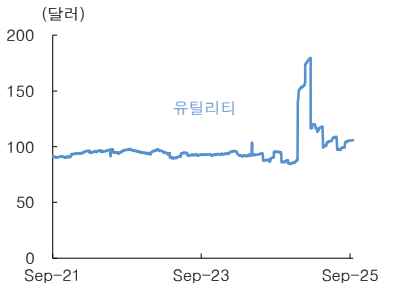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2] 에너지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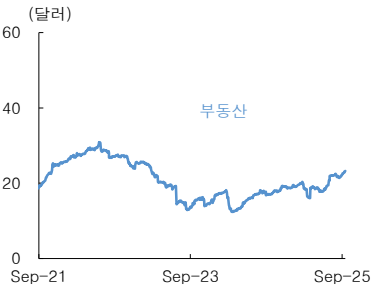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3] 유틸리티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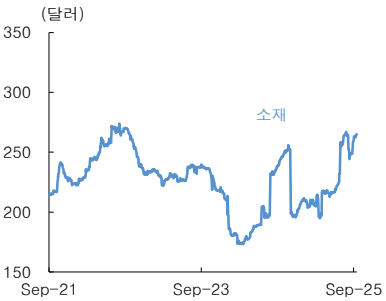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4] 부동산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5] 소재 업종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ppendix #6. 주식형 ETF 수익률

<표 11> 지역/국가별 ETF

(단위: 백만달러, %)

지역	세부 지역	티커	ETF명	AUM	수익률		
					1M	3M	6M
전세계	전체	ACWI	iShares MSCI ACWI ETF	22,651.6	2.9	9.5	16.8
	미국제외	ACWX	iShares MSCI ACWI ex US ETF	6,837.4	3.0	7.2	14.6
선진국	전체	URTH	iShares MSCI World ETF	5,832.6	2.5	9.2	16.7
	미국제외	IXUS	iShares Core MSCI Total International Stock ETF	49,259.4	3.1	7.6	15.6
	미국제외	VEA	Vanguard FTSE Developed Markets ETF	177,830.5	2.4	7.4	15.5
	EAFE	IEFA	iShares Core MSCI EAFE ETF	155,423.4	1.6	5.4	12.8
선진유럽	유럽	VGK	Vanguard FTSE Europe ETF	27,477.9	1.3	3.5	10.3
	유럽	IEV	iShares Europe ETF	2,297.7	1.2	2.9	9.2
	유로존	EZU	iShares MSCI Eurozone ETF	7,914.7	0.2	3.7	10.9
	영국	EWU	iShares MSCI United Kingdom ETF	2,871.6	2.0	4.1	11.6
	독일	EWG	iShares MSCI Germany ETF	2,313.6	(2.7)	(0.2)	7.3
	프랑스	EWQ	iShares MSCI France ETF	394.8	0.0	2.5	6.3
	스웨덴	EWD	iShares MSCI Sweden ETF	321.2	2.1	4.7	6.9
	이탈리아	EWI	iShares MSCI Italy ETF	737.6	1.2	10.5	21.8
	스페인	EWP	iShares MSCI Spain ETF	1,403.4	0.8	13.8	30.2
선진아시아	일본	EWJ	iShares MSCI Japan ETF	15,843.7	1.5	10.5	15.6
	아시아태평양(일본제외)	EPP	iShares MSCI Pacific ex Japan ETF	1,865.8	3.1	7.0	18.8
	호주	EWA	iShares MSCI Australia ETF	1,564.5	2.8	4.7	17.3
신흥국	전체	VWO	Vanguard FTSE Emerging Markets ETF	100,525.6	4.8	11.3	16.8
	전체	IEMG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107,736.3	5.0	11.1	18.6
신흥아시아	중국	MCHI	iShares MSCI China ETF	8,292.5	8.0	17.6	12.3
	타이완	EWT	iShares MSCI Taiwan ETF	6,534.7	4.3	12.8	25.4
	인도	INDA	iShares MSCI India ETF	9,370.7	1.4	(1.1)	9.2
	한국	EWY	iShares MSCI South Korea ETF	5,554.3	7.9	19.2	41.1
	인도	INDY	iShares India 50 ETF	667.3	0.5	(1.5)	7.9
	태국	THD	iShares MSCI Thailand ETF	236.2	6.2	15.2	14.9
	인도네시아	EIDO	iShares MSCI Indonesia ETF	312.3	(2.9)	(3.5)	8.4
	말레이시아	EWM	iShares MSCI Malaysia ETF	244.7	2.3	5.3	10.1
신흥유럽	터키	TUR	iShares MSCI Turkey ETF	169.5	0.0	11.3	(10.7)
	폴란드	EPOL	iShares MSCI Poland ETF	443.1	(1.9)	9.9	15.1

주: 9/15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12> 스타일별 ETF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세부 구분	티커	ETF명	AUM	수익률		
					1M	3M	6M
사이즈	대형	SPY	SPDR S&P500 ETF Trust	673,017.0	2.7	10.7	17.4
	중소형	IWM	iShares Russell 2000 ETF	69,833.1	5.4	14.6	18.0
스타일	성장(대형)	VUG	Vanguard Growth ETF	193,521.8	3.1	13.8	25.9
	성장(대형)	IVW	iShares S&P 500 Growth ETF	66,002.7	4.1	14.3	26.7
	성장(러셀1000)	IWF	iShares Russell 1000 Growth ETF	121,633.8	3.5	14.5	25.8
	가치(대형)	VTV	Vanguard Value ETF	146,921.6	2.4	6.5	7.7
	가치(러셀1000)	IWD	iShares Russell 1000 Value ETF	64,293.7	2.1	6.7	8.8
	가치(중소형)	VBR	Vanguard Small-Cap Value ETF	31,541.5	3.3	10.7	12.0
	배당	VIG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	97,975.9	2.9	7.6	11.7
	배당	VYM	Vanguard High Dividend Yield ETF	65,725.9	3.0	8.1	10.0
	저변동성	USMV	iShares MSCI USA Min Vol Factor ETF	23,374.0	0.4	0.9	2.0
	저변동성	SPLV	Invesco S&P 500 Low Volatility ETF	7,902.0	(1.0)	0.5	0.0
	퀄리티	QUAL	iShares MSCI USA Quality Factor ETF	54,952.1	1.8	7.4	11.7
	멀티팩터	LRGF	iShares US Equity Factor ETF	2,905.5	2.9	11.1	17.7
	모멘텀	MTUM	iShares MSCI USA Momentum Factor ETF	18,975.6	4.0	10.6	26.1

주: 9/15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표 13> 업종별 ETF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업종	티커	ETF명	AUM	수익률		
					1M	3M	6M
미국 업종별	IT	XLK	Technology Select Sector SPDR Fund	87,418.1	2.9	14.3	27.8
	금융	XLF	Financial Select Sector SPDR Fund	54,780.6	2.3	7.4	10.6
	헬스케어	XLV	Health Care Select Sector SPDR Fund	34,043.4	0.5	0.6	(5.5)
	커뮤니케이션	XLC	Communication Services Select Sector SPDR Fund	26,975.1	6.7	16.0	23.2
	에너지	XLE	Energy Select Sector SPDR Fund	26,656.3	3.2	0.2	(1.6)
	경기소비재	XLY	Consumer Discretionary Select Sector SPDR Fund	24,634.0	5.1	13.7	22.4
	산업재	XLI	Industrial Select Sector SPDR Fund	23,625.7	1.2	6.8	16.1
	유틸리티	XLU	Utilities Select Sector SPDR Fund	21,068.6	0.1	5.3	8.7
	필수소비재	XLP	Consumer Staples Select Sector SPDR Fund	15,860.0	(3.2)	(1.9)	(0.1)
	부동산	XLRE	Real Estate Select Sector SPDR Fund	7,858.6	2.3	1.0	2.1
	소재	XLB	Materials Select Sector SPDR Fund	5,603.2	1.0	4.1	5.8

주: GICS 기준의 11개 업종 기준, AUM 순, 9/15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2025년 9월 16일 현재 상기 종목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리포트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리포트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